

# 광주·전남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 3월중 1년전보다 5% 급등... 서민 고통 가중

### 소비자 물가도 4%대 치솟아... 밀가루 66% ↑

지난달 광주·전남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 속에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소비자물가가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밀가루와 라면, 휘발유 등 '장바구니' 물가가 5개월째 5%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물가도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4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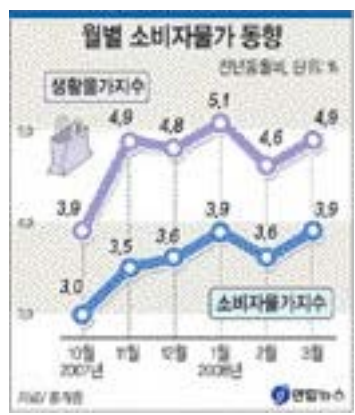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4.0%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1월(4.1%) 이후

5개월째 물가가 3.5% 이상 치솟고 있다.

전남도 전년 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이 3.8%에 달하면서 5개월째 3.5%를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목포의 물가가 4.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여수와 순천도 각각 3.8%, 3.7% 뛰었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한 것은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올 들어 학원비와 교통비 등 서비스요금 인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경우 파스타 1년 전보다 105.0%나 오른 가운데 ▲밀가루(66.2%) ▲급반지(55.4%) ▲경유(29.



3%) ▲라면(22.5%) ▲전철요금(17.3%) ▲대입학원비(16.8%)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치솟았다.

특히 광주·전남은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0%나 치솟았다. 이같은 생활물가 오름세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5%를 웃돌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란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생활물가상승률은 4.9%로, 소비자물가상승률(3.9%)을 크게 웃돌았다.

또 최근 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활필품의 가격도 전정부지수 치솟고 있어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2개 생활필품 가운데 파스타 1년 전보다 134.5%나 급등하는 등 전체의 84%인 44개 품목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

품목별로는 국제 곡물가격 강세의 여파로 밀가루가 64.1%나 오르면서 스낵과자(28.4%), 라면(21.1%), 자장면(13.0%)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만들터 지역경제 회생·일자리 창출도”

### 신임 김기주 광주지방국세청장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일 취임한 김기주(52·사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조선산업과 광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위주의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찾아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성실납세자에게는 ‘섬김의 세상’을 펼쳐 시장 질서와 민생안정을 해치는 음성·탈루소득, 무자료 거래, 상습 고액납세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과세의 공정성을 높일 작으라고 말했다.

조직역량 강화와 관련, 김 청장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확산시켜 ‘성과평가

(BSC) 라는 합리적인 평가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 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각 관서별 청렴도 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명주 출신인 김 청장은 1983년 행정사무관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해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감사관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감찰담당관 시절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해 국세청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인 최영명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아스콘 납품가 인상 해달라” 지역업체 무기한 공급 중단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아스콘 업체들이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납품중단에 들어가면서 각종 도로건설 현장에 차질이 예상된 다.

아스콘업계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원자재급 급등으로 경영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날부터 무기한 가동 및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스콘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스콘 주원료인 아스팔트 등 원자재급이 급등하면서 각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아스콘 1t 당 1만2천원~1만6천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만큼 납품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는 오는 3일 대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전국의 도로 포장 및 보수 공사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공급 중단에는 광주·전남 49개 업체를 비롯,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전국 419개 중소 아스콘제조업체가 모두 참여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1·4분기 고객관리 평가 농협광주본부 '최우수'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사진)는 올해 1·4분기에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고객관리부문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다.

이는 광주본부가 올해를 ‘고객중심 경영의 해’로 선정하고 고객관리와 CRM(고객관계관리마케팅) 생활화를

통해 각 영업점에서 매일 아침 뱃시 창구 개점식을 갖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성수 본부장은 “고객만족평가가 전국 1위의 쾌거는 관내농협 전 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친절봉사와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창립 40돌 맞은 포스코 '비전 2018' 선포



광양제철소 직원들과 광양시민들이 1일 광양제철소내 이노베이션센터 앞에서 포스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 ‘불혹의 포스코’ 10년후엔 매출 100조

### 에너지·E&C 등 전략사업 육성·신성장사업 개발

1일 창립 4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50주년이 되는 오는 2018년 매출목표를 100조원으로 정했다.

포스코는 이날 포항 본사 대회의장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철강업의 토대 위에 에너지, E&C(건설플랜트) 등 전략사업의 육성과 신성장사업의 적극 개발을 통해 10년 후 100조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조강생산량을 연간 5천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포스코 비전 2018’을 선포했다.

우선 철강부문에서는 해외 성장 시장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늘려 양

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최고 수준이 되는 ‘글로벌 Big3, Top3’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70조원의 매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철강부문에서는 E&C, 에너지, IT 등 기존의 핵심사업과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30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글로벌 Big3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생산 4천만 달톤과 함께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제 2 성장거점인 인도는 물론 중동과 미주 유럽지역의 생산거점도 적극 확대해 글로벌 조강생산

량을 연간 5천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구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포스코가 산업화시대에 조국을 위한 사명감으로 성공의 역사를 써왔듯이 미래에는 회사 창립 이념을 세계 속에서 승화 발전시켜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성공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체육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5월 중순에는 국악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대규모 문화예술축제가 어우러진 대규모 문화예술축제인 ‘광양 국악안장’을 개최해 광양 시민의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박태준 명예회장 “한국 기업들 지난 10년간 투자 못해 걱정”

지난 10년간 분배를 강조하는 경향을 거치면서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못해 성장동력을 잃은 것이 걱정이라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밝혔다.

박 명예회장은 1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에서 개최된 포스코 창립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분배한다, 분배한다 소리만 나왔지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안나오니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꺼렸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회장은 “그 때문에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지금



정권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경제를 다시 성장케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신일본제철과 포스코를 비교해달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신일철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두 업체는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등 협력관계이며 앞으로도 그런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소 포스코가 광산투자에 더욱 적극 나서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해온 박 명예회장은 현장 부의 당면과제인 자원의교를 위해 손수 나설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내 체력이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거나 열의를 갖고 협상자리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면서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등산, 낚시, 레저 활동의 필수품!!**

**SONY FM/AM 라디오(정품)**

녹취용, 학습용 고성능 IC레코더

MP3 파일 재생용 데이터 저장가능한 IC레코더

▶ICD-UX 시리즈◀

- ICD-UX 60
- 저장 50시간 녹음기능
- ICD-UX 70
- 저장 20시간 녹음기능

**또렷한음질**

ICF-S10NP2

**₩19,000원**

**특징**

- 고품질 음성
- 레코더/플레이백 노이즈
- 30시 방송 기록도 가능한 자동
- 미니라디오 FM/AM 수신
- 4개의 프리셋 버튼이 있어 편리

062-522-2000

**포스코 전통 제례 음식**

시례상 · 제사상을 완벽드립니다.

프랑스대도 대가도 전라북도대도 시례상 직접 생산한 장맛 떡밥과 참양귀비로 만든 떡, 전년도 곡물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려 올리는 대가도 떡과 함께합니다.

**시례상**

- 추가축성 : 110,000원 (17명)
- 기본시례상 : 230,000원 (31명)
- 특별상 : 330,000원 (35명)
- 대가축성 : 430,000원 (32명) 이하

02-옥사골 향토문화 (TEL) : 02-6200-1100, 02-6200-1101 FAX : 02-6200-0600

02-옥사골 향토문화 (TEL) : 02-6200-1100, 02-6200-1101 FAX : 02-6200-0600